북스

Books

詩로 피어난 섬진강의 봄 꽃 바람 햇살

수양버들

김용택 지음

"비, 색색의, 봄비/수양버들이 비를 맞고 휘늘어졌네./휘늘어진 가지에 푸른 물 내려오네./저렇게 휘늘어져 어쩌자는 것이냐. 세상의 푸른 속살이여!"('색의' 중)

김용택(61) 시인의 신작 시집 '수양버들'은 표지 그림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처럼 새 울고 여기저기 꽃들이 화사하게 만개한 봄날의 풍속화 같다.

지난해 정년한 후 전북 임실 고향에서 한가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 시인은 지난 25일 전화인터뷰에서 "여인의 치맛단처럼 강물에 끌릴 듯 드리워진 수양버들, 말 위에 앉아 나무 위 새소리에 살짝 고개 돌린 선비의 모습이 담긴 표지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며 "꽃놀이에, 여행하고 글쓰는 게 일상"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시집 곳곳 섬진강변에서 퍼지는 봄 내음이 가득하다. 시인은 "거저 피는 꽃은 없다"('성우에게'에서)며 즐거워하고 또 꽃을 "정열의 화신"('달콤한 사랑'에서)이라고 노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밀하고 찬란한 춘경 속의 시인. 먼 산을 바라보며 섬진강변 꽃길을 거닐던 시인에게 서러움과 슬픔이 불현듯 밀려온다.

김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트럭 잡화장수가 된 제자의 딸 얘기를 통해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 같은 걸 다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를 쓰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시인의 가슴 한켠 자리잡은 슬픔 한 자락은 농촌의 가난이었다. 농촌 초등학교에서 그가 38년 간 길러낸 꽃망울 같은 아이들, 그가 가르친 아이가 아비가 되어 딸을 낳았지만 농촌은 여전히 빈궁하다.

도시로 간 아비는 '도시의 작은 골목길 1톤 트럭 잡화장수'가 되었고, 시인이 가르쳤던 그 잡화장수의 딸 세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다. "세희가 달려와 내 손을 잡는다./따뜻하고 작은 손,/가난은 배고픈 봄날처럼 길고 멀다…내 어찌 눈물을 감추랴"('세희' 중)

"저 꽃 생사람 잡겠어요
내가 시방 홀렸지요
이러다가 자지러지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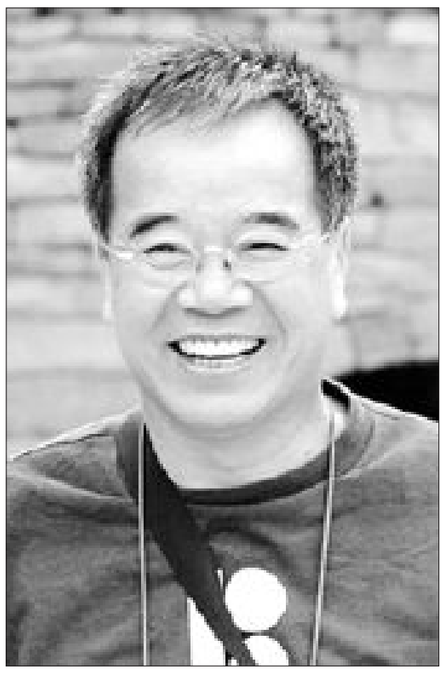
일요일이 되어도 일기장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세희. 눈 어두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신해 세희의 손톱을 깎아주는 시인은 목이 멘다.

"깎아도, 깎아도 길어나는 손톱처럼/가난은 잘리지 않는다."('손톱'중)

또 시집에는 "봄이다. 한 가지로 너무 오래 살았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 생의 높은 고비를 넘어선 시인의 회한과 상념이 짙게 묻어난다.

"내 나이/올해로 이순(耳順), 세상물정 모르는 바 아니나, /시 몇편 써놓고/밖에 나가니/세상 부러울 게 없다.//너희들은/내가 이렇게 잠시나마/끝없이 너그러워지는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 /내 나이/이순, 살아온 날들을 지우라는 뜻이다."('이순')

약간의 주제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번 시집 역시 가장 정겹고 빙그레 웃음이 나는 흥겨운 시편들은 고향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얌쇠양반' '옥희' '폐계' 같은 시들은 고요한 달밤에 울려퍼지는 노랫가락처럼 김용택 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그리움을 선사한다.

'전업시인'이라지만 김 시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다고 한다. 김 시인은 "기후변화협약과 제3세계 아동의 기아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고향 진메마을 사람들 이야기와 초등학교 재임시절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담은 산문집 2권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비·8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걷는 것이 쉬는 것이다

김산환 글·사진

"강추" 걷고 싶은 우리 옛길 23곳

정신 없이 돌아가는 세상사에 지친 현대인들이 '느리게 사는 삶'에 주목하고 있다. 여행도 마찬가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품어보고, 사색에도 빠져보는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좋은 길라잡이다.

'사라져 가는 오지 마을을 찾아서' 등 테마 여행서를 펴내온 여행 전문 작가 김산환씨가 오랜만에 출간한 '걷는 것이 쉬는 것이다'는 걷기 좋은 우리 길을 소개한 훌륭한 안내서다.

필요한 물품을 챙겨 넣은 배낭과 반나절을 무리없이 걸을 정도의 체력을 갖춰다면 이제 저자가 수차례 답사하며 꼼꼼하게 소개한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자.

저자가 소개한 23개의 길은 옛길 박물관이 추천하는 '걷고 싶은 우리 길'이기도 하다. 여행의 테마는 크게 세가지다. 물과 고개와 사람.

'물'을 따라가는 길은 보리밭과 유채꽃이 어우러진 봄날의 완도 청산도, 1시간이면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황홀감을 전해주는 제주 '다랑쉬 오름', 자연이 빚어놓은 주산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청송 주왕산 등이다.

'고개'를 넘어가는 길은 눈꽃이 아름다운 평창 대관령 옛길, 철쭉과 수국과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순천 조계산 굴목이재, 은빛 억새바다 밀양 재악산 사자평 등이다.

마지막 '사람'을 만나는 길은 고창 선운산, 해남 두륜산, 강진 만덕산, 장성 축령산 등을 찾아가는 길이다.

책을 읽고 난 후 직접 그 길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지도와 코스를 실었다. 별 갯수(1개~5개)를 활용, 코스 난이도를 설명했으며 걷기 좋은 계절을 소개했다. 길은 언제나 그 곳에 있지만 풍경과 운치를 '제대로' 만끽하려면 그 때를 알고 가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이다.

그밖에 해당 지역의 지도, 먹을거리, 볼거리, 숙박시설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권 씩 곁에 두고, 우선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부터 살랑살랑 나들이를 다녀오면 좋을 듯하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점심시간'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먹는 재미도 만끽할 수 있도록 맛난 도시락과 간식 챙기는 걸 잊지 말 것.

〈실천문학사·1만 4천9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설 토정비결'

총 4권으로 재구성

1990년대 초 출간 300만 부 이상 판매돼 베스트셀러가 된 이재운의 역사장편소설 '소설 토정비결'이 새로 단장해 독자들을 찾았다.

첫 출간 당시 3권과 2부격인 '당취'(전5권)를 합쳐 총 4권으로 재구성했다.

1부 '토정 이지함'에서는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이지함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려냈으며 2부 '토정의 후예'에서는 토정의 애민정신을 계승한 휴정과 유정, 정휴가 환난 속 민초들을 구제해 나가는 이야기가 재미나게 펼쳐진다.

〈해냄·각권 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새책

▲베를린 포플러나무=세계 20여개국에 소개된 노르웨이 여성 작가 안네 B. 락데의 베스트셀러 소설. 노르웨이의 농장마을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뒤틀린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물질만능주의, 동성애, 신구세대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통찰했다. 〈행간·1만2천원〉

▲슈퍼크런치=경제전문가도 '감'못잡는 예측불허의 시대, 이제 용의주도한 '데이터'로 헤쳐나가야 할때다. 예일대 경영대학 교수인 이언 에이즈는 기존의 전문가를 대체할 이 통계전문가들을 '슈퍼 크런치'라고 부르며 통계학적 경영기법을 고찰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예측했다. 〈북하우스·1만5천원〉

▲심리학 생활의 지혜를 발견한다=사람의 속내는 가늠하기가 참 힘들다. 책은 '임신기간의 스트레스는 태아에 해로운가', '누가 시키는 일은 왜 하기 싫을까' 등 평소 궁금했던 인간의 심리관련 지식을 59개 주제로 나눠 설명했다. 〈부글·1만5천원〉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불량서클에 몸담고 있는 까칠한 십대 '재석'이 사회봉사를 하면서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고정욱 씨가 낸 청소년 성장소설로 가정불화, 학교폭력,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차별받는 청소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다. 〈애플북스·1만원〉

▲다보스 리포트 위기 이후 세계=지난 2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현장에서 만난 세계 석학 · 기업인 ·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한 내용을 담았다. 위기 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4천원〉

▲꿀벌 없는세상 결실 없는 가을=꿀벌이 없으면 농업도 식량도 없다. 환경 전문가인 작가 로완 제이콥슨은 '꿀벌의 실종사건'을 통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해 인간들에게 다가올 환경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에코리브르·1만6천원〉

▲난 네 뒤에 있었어='밤의 피크닉', '삼월의 붉은 구렁을' 등 미스터리, 판타지, 호러를 넘나들며 다양한 스타일의 장르소설을 선보여온 일본 작가의 온다 리코의 단편집. 기발하고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무장한 열다섯 편의 색다른 단편이 수록됐다. 〈노블마인·1만2천원〉

▲굿바이, 찰리=네덜란드 작가 스탄 반 엘더런에게 작가로서 명성을 안겨준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를 통과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통찰력 있는 물음과 울림을 전한다. 과장되지도 미화되지도 않은 두 소년의 우정을 그린 스토리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뜨인돌·9천500원〉

▲구테 나흐트! 달콤한 잠으로의 여행=최악의 불황에 밤새 뜬 눈으로 지적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독일작가 디트마르 비트리히의 책은 단숨에 깊은 잠으로 이끌어줄 불면치료제 같은 책이다. 그가 엄선해 놓은 작품들의 평온함 속이라면 오늘밤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드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은책 만들기·1만1천원〉

국민공인중개사
☎ 핸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2억 매매가1억2천 만원
▶상업지역 130P 삼각동
공시지가+건물과표13억 매매가7억5천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북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8억 아파트1300세대 상가매매가2억5천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표6억 매매가3억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상업지역
공시지가+건물과표7억 매매가4억2천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상업지역 땅약95p 공시지가3억5천 매매가2억4천
▶ 30m 도로 접
감정가3억8천 매매가2억
▶ 장성 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등
▶ 2층 사무실
32억 빌딩급매
▶ 대 200p 건 450p
▶ 보 8억원 월2350만원 융 13억포함
감정가46억 매매가24억
▶ 빌딩급매 대지500p 건평1000p 지하1층, 지상5층 전체공실
화순주유소급매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매 12억 융자 6억포함
화순,절터,요양원,별장부지
▶ 9500p 현재 황토방 창고관리실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장성 임 야사슴목장,별장
▶ 100000p 4억7천
♣공시지가 이하 급 매물 접수 환영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함 수완지구 건축상담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광산구 신가동 답 2738㎡ 대로변 매매가 26억
▶광산구 문수동 답 4145㎡ 매매가 8억
▶수완지구 333-1(명의변경가능) 60m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빌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수완지구 단일평형 170세대 정문앞 이 주지역 330㎡ 3.3㎡당 450만원
상가·건물매매
▶수완동 현진상가 1층 94㎡ 초중고인접 미용실 문구 분식 체인 매매가 2억3백(인테가)
▶수완지구 주공상가
* 996세대 배후 3,200여세대 중심 1층 67.5㎡(20.42평), 명의변경 가능 매가 : 5억 5천, 대출 : 2~4억 가능
* 632세대 배후 3,200여세대 중심 1층 101.64㎡(30.75평), 명의변경 가능 매가 : 5억 8천, 대출 : 2~4억 가능
* 968세대 배후 3,200여세대 중심 2층 35.5㎡ 매가 : 9천, 대출 : 4~5천 가능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리바게뜨 입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대표:성 봉 규 (중개등록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전 조선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제7대 총동우회장
·(주) 사단법인 광주FC레전드 공동대표
·전 광산문 지역위원장
·전 서광주경찰서 자문위원장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전 365-81지구 전남드림타운 3대회장
·현 365-81지구 자치위원장
상가 주택 숙박시설 근린시설 (최고의 유통 전문가 추천 물건 다량 확보)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정가 최저가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충장지점근 152/480 3/18 4억8천만 2억9천1백
중앙동 중앙초교인근 158/771 3/13 8억5천만 3억7천4백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인근 547/1113 3/6 12억5천 6억7천6백
화정동 신일초교인근 9/31 3/18 9천4백 2천1백
농성동 농성2동 272/280 3/17 2억9천 1억3천1백
남구 지산동 대림e편한세상 501/705 3/4 5억5천 2억5천2백
주월동 방림동신협사근 4/7 333/1062 6억1천5백 2억7천6백
북구 중흥동 중흥초교인근 333/1062 3/3 6억1천5백 3억4천4백
광산구 월계동 광주진산여상근 266/325 3/18 2억6천4백 1억7천1백
월 ■ 따개끼 (■■부동산 침체기는 최고의 투자처)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정가 최저가
서구 광천동 효골여자중학교인근 175/285 4/7 2억1백 1억3천1백
화천동 효골여자중학교인근 302/731 3/3 5억9천3백 3억7천8백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261/407 3/13 4억8천7백 2억8천8백
광산구 송정동 하나병원인근 423/578 3/4 5억1천8백 3억6천1백
주 택 매월입찰물건 고객맞춤수익률전문(경락률)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정가 최저가
동구 동명동 동명고회인근 79/95 4/7 8천7백 3천9백
남구 대지동 상촌미술내 367/84 4/9 8천7백 6천1백
월산동 삼우APT인근 205/297 3/17 1억8천6백 1억3천1백
북구 두암동 휴플러스인근 142/164 2/26 9천6백 5천4백
두암동 금성벤션 118/91 3/5 6천8백 4천8백
아 파 트 고객맞춤형 최고의전문가매입상담
지역 소재지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정가 최저가
서구 치평동(메광 한신) 31/59 3/18 8천 5천6백
금호동(대우트라팰) 34/59 3/18 8천6백 6천4백
금호동(풍원로스텔) 47/84 3/11 1억8천5백 1억3백
남구 진월동(한국아델리움) 42/83 3/13 2억4천 1억6천8백
주월동(삼다에코빌) 39/81 3/17 1억2천 6천7백
주월동(한빛베르디움1차) 54/84 3/4 2억2천 1억7천2백
북구 일곡동(동아) 46/99 3/18 1억5천 1억1천
효봉동(효봉아이파크) 61/151 3/13 3억1천 2억1천7백
연제동(연제2차대주) 50/84 3/5 1억8천5백 1억1천4백
광산구 본남동(삼성) 24/59 3/13 7천2백 5천1백
월계동(성원) 51/83 3/14 1억1백 7천3백
신창동(신창3차호반) 48/84 3/4 1억5천3백 1억1백
숙박시설 전문가 (락집상점)
지역 소재지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요기중(임야) 496 4/9 2천5백 1천4백
북구 신안동 353/1134 3/18 11억5천4백 8억4천8백
토 지 (대지, 농지 | 토지의 투자물은 상상초월)
지역 소재지 지목 토지/건물(㎡) 경매일자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요기동 밀야 496 3/2 2천5백 1천4백
담양군 대전면 전 1064 3/6 5천4백 3천8백
해경법률경매 위치: 법원정문앞
T:062)225-2665 H,P:011-605-7777 •광주 전남권 경매 전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핸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상무지구 토지120평 건물554평 보증금 2억/월세2000만원-매가32억
• 토지200평 건물 725평 보증금 37억/월세1,700만원-매가92억
• 토지600평 건물1,300평 보증금 37억/월세3,000만원 융자 12억 매가 78억
• 토지300평 건물 970평 매매가 68억
• 현금 5억으로 사무나 헬스클럽 운영하실 분
▶토지(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회사사옥 및 병원 학원부지 등)
• 2,800㎡(850평 - 매가평당1,300만원
• 727㎡(220평 - 평당 1,200만원
• 450㎡(136평 - 평당 850만원
• 833㎡(250평 - 평당 1,250만원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기타용도
• (농장) 그린밸트 73,000㎡(2만2천평 평당 9만원 (동산동)
• (장등동)주거지역 3,760㎡(1,140평 평당 40만
• (전원주택지) 화순서성리 전원주택지 분양 평당 65만원 (18세대 등호인 주택으로 적합)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신축).
위 치:시청앞 주택공사 등기소 주변
권장업종:금융업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사무실등
맛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번영 공인중개사
모 텔
전 문 업 종
신축모텔, 구모텔
무인모텔, 사우나
고시텔, 원 룸
독서실, 펜션
전문컨설팅
부지, 설계, 허가
시공, 건설, 리모델링
시설, 비품, 영업상담
임대물건, 임차인
매도물건, 매수인
★24시간접수상담★
☎(代) 062)531-4665
상 담 062)515-0030
동림2지구동림병원앞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